

## 한국어판 PANSI(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연구\*

허 만 세<sup>+</sup>

(계명대학교)

이 순 희

(계명대학교)

김 영 숙

(남서울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PANSI(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척도가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 552명에게 한국어판 PANSI 척도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PANSI 척도의 내적일관성 정도를 알아보았고, 관련척도(CES-D, BDI, RES, SWLS)들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준거타당도를 살펴보았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PANSI 척도의 요인구조의 적합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첫째, PANSI 척도의 내적일관성 Cronbach'  $\alpha$ 는 .883으로 신뢰성이 비교적 높았다. 둘째, PANSI 척도는 Self-esteem 및 SWLS 척도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 BDI, CES-D와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나 준거 타당도를 일정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PANSI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 모형이 적합하였으며 자료에 대해 66.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PANSI 척도가 국내에서 청소년 자살사고를 측정하고 나아가 선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제어: 청소년 자살, 자살사고, PANSI, 신뢰성, 타당성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A8019895).

<sup>+</sup> 주저자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PANSI(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척도가 청소년 자살사고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자살사고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자살사고가 단지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Weissman et al., 1979). 또한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가장 선행되는 과정이 자살사고라고 보았을 때 자살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도 자살사고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여지영·박태영, 2013). 특히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자기 보고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보고와 비교했을 때 자살사고와 같은 자살위험에 대해 더 높은 예견의 가능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Pfeffer et al., 2001). 그러므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살사고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자살위험을 사정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박병금, 2007).

자살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하는 한편 자살시도란 스스로 죽기 위한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자살사고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살사고는 죽음에 대한 기대, 소망 혹은 자살 방법과 같이 죽음에 대한 광범위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살사고는 비교적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홍영수·전선영, 2005; 박병금, 2007). 아울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살 시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과 그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도 있을 수 있다.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이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이나 개인의 발달과 관련이 있고, 청소년 자살의 보호요인은 개인의 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소시켜 주고 완화시키며 개인의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심미영·김교현, 2005). 이는 청소년 자살이 다차원적인 요인에 유발되기 때문에 자살의 선행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둘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노혜련 외, 2012). 이러한 관점에서 PANSI 척도가 청소년 자살사고의 부정적인 위험요인과 긍정적인 보호요인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한국건강증진재단(2013)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10세에서 19세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수가 2001년 3.19명에서 2011년 5.58명으로 57.2%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OECD 회원국의 아동·청소년인구(10~24세) 자살률이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6.4명에서 9.4명으로 46.9%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청소년 자살 사망자수의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진재현·고혜연, 2013). 또한 청소년 자살 생각률은 분석대상자수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19.3%에서 2011년 19.6%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18.3%, 2013년 16.6%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13.1%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자

살생각은 고등학생이 12.8%인 것에 비해 중학생은 13.3%로 나타나 중학생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특성화계고 고등학생 보다 일반계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이와 같이 청소년 자살생각이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청소년 자살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다양한 측면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청소년 자살이 충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박순희 외, 2015) 자살생각에 대한 조사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자살요인과 관련된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관찰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자료들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갖추어진 척도로 청소년 자살생각을 측정했는지를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가 단일문항인 경우가 적지 않다(김혜성, 2009; 정익중 외, 2010; 윤명숙·조혜정, 2011; 김지수, 2012; 노혜련 외, 2012; 이선희·전종설, 2012; 남영옥, 2013). 예를 들면 한국청소년패널에서는 “나는 때때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의 단일 문항으로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문항으로 자살사고를 측정하는 것은 그 결과가 신뢰타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Chioqueta and Stiles, 2007). 나아가 단일문항으로 자살사고를 측정할 때 자살사고에 대한 개념이 연구자와 피검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피험자들 간에 자살사고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이혜선·권정혜, 2009). 단일문항으로 자살사고를 측정하는 문제점은 현재 국내에는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타당성이 확보된 척도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현재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들 대부분은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해서 체계적인 검정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사고는 다양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박재연, 2010; 구경미·정현희, 2012; 김지수, 2012; 노혜련 외, 2012; 서신자·정민숙, 2013; 남영옥, 2013; 김갑숙·박치홍, 2015) 고정되고 확고한 것이 아니라 있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심해지기도 하는 양상을 보인다(이혜선·권정혜, 2009). 그리고 각 문화권의 특수성에 따라 자살사고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외국의 척도를 체계적인 검정 절차 없이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은 연구의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실천 현장에서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타당성이 검사된 도구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는 신뢰타당도가 확보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선별검사가 큰 도움이 되는데,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활용한 검사가 효용도가 높다(이혜선·권정혜, 2009). PANSI 척도의 한국어판 개발은 정기적인 선별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스크리닝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용할 것이다. 또한 PANSI 척도는 비교적 적은 14문항으로 짧은 시간에 청소년 자살사고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Osman et al., 2002) 스크리닝 도구로 사용하기에 용이

하다. 둘째, 자살에 대한 최선의 개입방법은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PANSI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자살사고는 자살시도나 자살행위의 중요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살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타당성이 확보된 척도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사회복지사가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학교전체에 개입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 자살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PANSI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PANSI 척도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청소년 자살 관련 개입 프로그램의 성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할 때에는 신뢰타당도가 확보된 척도를 사용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허만세·이순희, 2014). PANSI 척도는 개발자에 의해 반복측정신뢰성이 검정된 척도로서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Osman et al., 2002). 따라서 한국판 PANSI 척도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에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PANSI 척도를 연구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본 연구에서는 PANSI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분석하여 신뢰도를 검정하고 다른 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검사하였으며, PANSI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에서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PANSI 척도의 신뢰타당도 연구 결과는 PANSI 척도가 국내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척도의 중요성

청소년의 자살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으로 인하여 성인의 자살 행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먼저 성인의 자살은 우울이나 정신과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청소년 자살은 삶에 대한 완전한 포기보다는 가정과 사회에게 도움을 청하는 표현의 방법이기도 하다. 즉 청소년기에 심각한 정서적 갈등상황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때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적인 선택으로 나타나는 것이 청소년 자살이다(김정란·김혜신, 2014).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절망감이나 우울증보다 분노와 충동성을 포함한 적대감이 자살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적대감이 자살 위험성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효진 외, 2000; Gispert et al., 1987). 심리분석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살사고를 가지거나 자살시도를 하는 행위는 본인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을 방어하고자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때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공격성을 표현하는 것이 자살이다(정묘순·서수균, 2014; Kernberg, 2004).

청소년 자살은 성인의 자살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심리정서적 발달 단계를 고려한 신뢰타당성이 확보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자살사고는 생애주기 중 청소년기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이지숙, 2013),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살사고와 자살에 대한 동기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들이 더 자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구경미·정현희, 2012). 이처럼 청소년기에 자살 생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살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을 정확하게 선별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둘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자살생각은 실제 자살행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고재홍·윤경란, 2007) 자살생각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자살시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민병근 외, 1986). 나아가 청소년기에 자살생각이 높았던 경우 무의식중에 자살생각과 시도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다(김현순·김병석, 2008; 오승환·이창한, 2010). 이는 자살행동이 자살생각으로부터 시작되며,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는 그 출발점인 자살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정의석·임성택, 2011)때문에 자살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셋째, 자살은 일단 발생한 후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개입이나 조치도 소용이 없는 극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예방만이 자살에 대한 유일한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자살생각이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이중은 외, 2013). 그렇기 때문에 자살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성이 확보된 척도의 개발이 중요하다.

## 2) 선행연구에서 자살 관련 척도의 사용

최근 들어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청소년 자살 연구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된 자살관련 척도를 정리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자살관련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도구를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 청소년 자살관련 연구에서 자살변수 측정에 사용되는 주요 척도들 대부분이 여러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특정한 주제나 영역으로 척도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 중에서 자살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69편이었으며, 그중 Beck 등(1979)의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와 단일문항을 사용한 연구가 2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Reynolds(1988)가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가 18편이었다. 이외에도 Harlow 등(1986)이 완성한 자살관념 척도(Suicide Ideation Scale : SIS)를 사용한 연구는 3편, Beck, Steer와 Ranieri(1988)가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 BSI)를 사용한 연구는 1편, Domino 등(1982)이 개발한 자살태도 척도(Suicide Opinion Questionnaire : SOQ)를 사용한 연구가 1편이었다. 그리고 Jenner와 Niesing(2000)가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Attitudes toward Suicidal Behaviour: SEDAS)를 사용한 연구가 1편, Cull와 Gill(1988)이 개발한 자살가능성 척도(Suicide Probability Scale: SPS)를 사용한 연구가 1편,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를 근거로 Kang(2000)이 개발한 청소년 건강위험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2편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자살척도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SSI의 사용을 살펴보면 SSI 척도는 임상전문가가 구조화된 또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살위험성을 평가하는 형태의 질적인 위험성 평가 도구라 대규모 설문조사에서는 사용의 어려움이 있다. SSI 척도가 가진 질적 평가도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Beck 등(1988)은 21문항의 자기 보고식 검사도구(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BSI)를 청소년과 성인의 자살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이혜선·권정혜,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소년 자살연구에서 BSI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1편(송인한 외, 2012)이었으며 SSI 척도를 그대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SSI 척도 19문항 중에 필요한 문항만 분리하여 사용하는 연구도 많았다. 다음으로, 국내 청소년 자살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단일문항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살생각이나 시도를 측정하는 연구의 문항 내용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김지수, 2012; 김정란·김혜신, 2014; 최인재, 2014)와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김현주·노자은, 2011; 윤명숙·조혜정, 2011; 김소영·홍세희, 2012; 이선희·전종철, 2012)와 등이 있었다. 이 이외에도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전경숙 외, 2012; 김형태 외, 2014; 김현식, 2015) 등과 같이 예 혹은 아니으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 경험 유무만을 응답하도록 하는 연구(김혜성, 2009; 정익중 외, 2010; 노혜련 외, 2012; 김정남·남영옥, 2013; 남영옥, 2013)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김혜성(2009)의 연구에서는 K-YSR(Korean-Youth Self Report)의 여러 문항 중 자살문항만 분리하여 사용하였으며 남영옥(2013)과 김정남, 남영옥(2013)의 연구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2005)에서 개발한 위기평정 척도에서 자살관련 문항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국내의 청소년 자살연구에서 SSI 척도와 단일문항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척도는 Reynolds(1988)가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이다. SIQ 척도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의 자살 충동 빈도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자살생각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Reynolds, 1991; Reynolds and Mazza, 1994).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일관되게 사용되는 척도는 없으며, 더욱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관련 척도들에 대한 신뢰타당성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표 1> 청소년 자살 선행연구에서 자살척도의 사용

연번	척도명	척도 개발자 (개발연도)	논문 편수	자살척도 및 자살단일문항 사용한 논문
1	SSI	Beck, Kovacs, Weissman(1979)	21편	김인규·조남정, 2006; 고재홍·윤경란, 2007; 김순규, 2008; 김은경·이정숙, 2008; 김정진·윤명숙, 2008; 오현아 외, 2008; 김현순, 2009; 이지현·이정윤, 2009; 박재연, 2010; 최소정 외,

연번	척도명	척도 개발자 (개발연도)	논문 편수	자살척도 및 자살단일문항 사용한 논문
				2010; 김가영·박경, 2011; 우채영·김판희, 2011; 정의석·임성택, 2011; 구경미·정현희, 2012; 최혜인 외, 2012; 구차순·김동환, 2013; 김미예·김정미, 2013; 김재엽 외, 2013; 서신자·정민숙, 2013; 정성미·이지연, 2014; 김갑숙·박치홍, 2015
2	SIQ	Reynolds(1988)	18편	박병금, 2007; 박현숙, 2007; 홍영수, 2009; 김미경·이은희, 2011; 김진주·조규관, 2011; 박상용 외, 2011; 홍나미, 2012; 권세원 외, 2013; 여지영·박태영, 2013; 이종은 외, 2013; 이지숙, 2013; 김경아·육성필, 2014; 남석인 외, 2014; 유용식, 2014; 조옥선·백진아, 2014; 하진의, 2014; 박순희 외, 2015; 강주현·신태수, 2015
3	SIS	Harlow et al(1986)의 척도를 노혜련 등(2005)이 번안한 자살관념척도	3편	노혜련·최경일, 2009; 강희양·양경화, 2013; 김윤정·이창식, 2014
4	K-BSI	Beck et al(1988)의 척도를 이혜선·권정혜(2009)가 번안	1편	송인한 외, 2012
5	SOQ	Domino et al(1982)의 척도를 오승근(2005)이 번안한 척도	1편	이종익, 오승근, 2014
6	SEDAS	Jenner, Niesing(2000)	1편	오지희·김민정, 2014
7	SPS	Cull and Gill(1988)를 고효진 외(2000)이 타당화한 청소년자살위험성 예측척도	1편	김현주, 2008
8	건강위험행위 측정 도구	Kang(2000)	2편	이은숙, 2007; 박영숙·권윤희, 2013
9	단일 문항	-	21편	박은옥, 2008; 김혜성, 2009; 정익중 외, 2010; 김현주·노자은, 2011; 박미정 외, 2011; 박재우·황병덕, 2011; 윤명숙·조혜정, 2011; 김소영·홍세희, 2012; 김지수, 2012; 노혜련 외, 2012; 이선희·전종설, 2012; 전경숙 외, 2012; 김정남·남영옥, 2013; 김채봉 외, 2013; 남영옥, 2013; 박형수

연번	척도명	척도 개발자 (개발연도)	논문 편수	자살척도 및 자살단일문항 사용한 논문
				외, 2013; 김형태 외, 2014; 김정란·김혜신, 2014; 홍민순·정혜선, 2014; 최인재, 2014; 김현식, 2015

청소년 자살관련 척도의 신뢰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몇몇 연구가 있었는데, 이를 살펴 보면 먼저 대학생을 대상으로 Beck 등(1988)이 개발한 자살생각척도(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BSI)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한 연구(이혜선·권정혜, 2009)가 있으며, Linehan 등(1983)이 개발한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Reasons for Living Inventory: RFL)의 타당화가 연구(이기원 외, 2010) 및 척도 개발자의 원척도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박준하, 2012)가 진행 되었다. 그리고 Osman 등(1998)이 개발한 청소년의 살아야 할 이유 척도(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RFL-A)의 타당화 연구(김태희, 2012), Gutierrez 등(2002)에 의해 개발된 살아야 할 이유-청년용 척도(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Young Adults: RFL-YA)의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기존의 신뢰타당도가 연구된 척도들은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위험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거나 문항수가 많아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 자살생각을 스크리닝 하기 위한 선별도구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성과척도로 사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인 반복측정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들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 3) PANSI(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척도

PANSI(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척도는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Peter M. Gutierrez와 Augustine Osman(1998)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Osman et al., 2002). 이 척도는 학교 및 치료 현장에서 자살 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사고를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위험으로 구분하여 빈도로 평가하도록 개발된 척도이다(Gutierrez and Osman, 2008). PANSI 척도는 치료현장과 비치료 현장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스크리닝 척도로서 조사 대상의 특징에 따라 각각의 해석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부연하면, 이 척도를 활용하여 치료 현장에 있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할 때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선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Gutierrez and Osman, 2008), 예를 들어 이 척도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할 때 부정적인 문항의 임계치를 치료현장에서는 1.63, 비치료 현장에서는 1.13으로 설정하고 청소년의 측정 점수가 임계치 보다 더 높은 점수에 해당할 경우 자살사고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더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척도의 긍정적 문항은 치료 및 비치료 현장 모두에서 임계치를 3.33으로 설정하고 청소년의 자살사고 측정 점수가 임계치보다 더 낮을 경우 자살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 더 적을 수 있다고 평가하도록 제안한다(Gutierrez and Osman,



2008).

PANSI 척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척도의 신뢰성은 척도 개발 당시 청소년 4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가 긍정적인 사고는 .80, 부정적인 사고는 .91이었다(Osman et al., 1998). 척도 개발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신과 입원 청소년 1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는 .89, 부정적인 사고는 .96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Osman et al., 2002). 이 외에도 국외의 다른 연구에서도 이 척도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본 척도는 검사-재검사를 통해 반복측정신뢰성이 확보된 척도로서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반복측정 신뢰성은 동일한 대상에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성과를 파악하고자 할 때 측정도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속성이다(허만세·이순희 2014). PANSI 척도는 Osman 등(2002)의 연구에서 반복측정신뢰성이 검정된 척도로서 정신과 입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반복측정신뢰성은 긍정적 사고 .69, 부정적 사고 .79로 나타났다.

다음은 PANSI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으로 측정변수 간의 일치성, 즉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학식·임지훈, 2013)이다. 다양한 타당성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타당성은 측정도구의 요인구조 분석을 살펴봄으로써 척도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에 정확하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구성타당성이다. 본 척도는 개발자에 의해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하위요인으로 긍정적인 사고 6개 문항, 부정적인 사고 8개 문항으로 나누어져 2개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Osman et al., 1998). 국내에서는 본 척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지만 국외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2요인 모형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Osman et al., 2002; Osman et al., 2003; Muehlenkamp et al., 2005; Yoder et al., 2008; Chang et al., 2009; Xuezi et al., 2011). 척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타당성에는 준거타당도가 있는데 이는 측정도구와 다른 측정도구의 상관관계와 관련된다(이학식·임지훈, 2013). 예를 들어 PANSI 척도와 기존의 유사척도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논리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그 척도들 간에는 준거타당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척도는 개발자에 의해 하위요인 중 부정적 위험은 BDI-II(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HS(Beck Hopelessness Scale)척도와 준거타당도가 검정되었으며, 긍정적 요인은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척도와 준거타당도가 검정되었다(Osman et al., 2003)

### 3.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가운데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한 7개 학교의 학생들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3개월 간 본 조사가 실시

되었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상담)복지사 및 교육복지사업 담당 교사를 통해 연구의 목적 및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각 학교 관리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그 후 대상 학생들의 가정으로 연구대상자(보호자) 설명문과 동의서를 발송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므로 보호자가 연구의 목적과 설문조사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문을 작성하여 동의서와 함께 발송하고 보호자가 학생의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를 한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조사방법은 교육(상담)복지사 및 교육복지사업 담당교사를 통해 보호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조사를 통하여 총 59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응답이 많은 42부를 제외하고 총 55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 도구

### (1) PANSI(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척도

PANSI 척도는 Peter M. Gutierrez와 Augustine Osman(1998)에 의해 개발된 PANSI(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학생 1명 및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명이 번안하여 문항을 구성했다. 이후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사회복지학과 외국인 교수의 역번역 과정을 통해 수정을 한 후 최종 K-PANSI(Korean-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척도를 작성하였다.

PANSI 척도는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연구와 실천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이다. 본 척도는 자살과 관련된 청소년 사고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위험의 빈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Osman et al., 2002), 5분에서 10분 이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척도이다(Osman et al., 2008). PANSI 척도는 총 14개의 문항이며 하위 요인으로는 긍정적인 요인 6항목(2, 6, 8, 12, 13, 14)과 부정적인 위험 8항목(1, 3, 4, 5, 7, 9, 10, 11)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형식(1점 : 거의 없음, 2점 : 매우 드물게, 3점 : 다소 있음, 4점 : 어느 정도 있음, 5점 : 대부분 있음)이며(Osman et al., 2002) 구체적인 문항의 예로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등의 문항이 있다.

PANSI 척도의 개발 당시 내적 일치도(N=450)는 긍정적 요인 .80, 부정적 위험 .91이었으며(Osman et al., 1998), 이후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신뢰타당성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N=195)는 긍정적 요인 .89, 부정적 위험 .96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Osman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가 긍정적 요인 .877, 부정적 위험 .951이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80로 나타났다.

### (2) 우울증 척도(The Cente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20: CES-D 20)

CES-D 척도는 Radloff(1977)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척도로 현재의 우울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 보고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배성우·신원식, 2005). 본 척도는 우울한 기분, 무가치감, 절망감, 식욕 상실, 수면 장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0점(전혀 없었다)에서 3점(매일 있었다)으로 평점 한다. 본 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국외의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사용되었고 우울증상 척도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가 되었다. 본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일반인군(N=540) .91, 임상환자군(N=164) .93, 주요우울증상군(N=46) .89(조맹제·김계희, 1995)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37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나타났다.

### (3) 한국판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BDI는 Beck 등(1967)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국내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에 대한 검사로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증상을 구체적인 진술문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수치화 하는 혼란을 줄인 척도이다(김재엽 외, 2013). 본 척도는 검사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2주일 동안에 대상자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며 각 문항별로 증상 정도에 따라 0점에서 3점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총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가 0점에서 9점 사이일 경우 정상이며, 10점에서 15점 사이이면 가벼운 우울 상태로 볼 수 있다. 16점에서 23점 사이일 경우 중한 우울상태이며, 24점에서 63점까지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일반인군(N=51명) .78, 우울환자군(N=39명) .7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16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나타났다.

### (4)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 RSE)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변안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국내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척도이며,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내적기제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여지영·박태영, 2013).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5개 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이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자신의 가치, 자질, 실패감, 능력, 자부심, 만족감, 존경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형식으로 1-4점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본 척도는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원척도(N=5,024)에서 .85(Rosenberg, 196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19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나타났다.

### (5)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SWLS)

SWLS 척도는 Diener 등(1985)에 의해 개발된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관적 행복감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정하는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국내에서는 임남연 외(2010)가 타당화를 연구하였다. 이 척도의 개발자는 행복한 상태 혹은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상태를 삶에 대한 만족이 높고 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동시에 부적 정서를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하였다(임남연 외, 2010; Diener et al, 1985). 즉 삶에 대한 만족은 행복의 하위요인으로 결국 이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의 부분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중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지에는 삶의 만족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보다 행복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응답하는(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비교적 간단한 척도이다.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대학생(N=129)을 대상으로 한 임남연(2008)의 연구에서는 .80이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척도를 사용한 논문(N=4,342)들을 개괄적으로 연구한 임남연 외(2010)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가 .74~.95 사이에 분포해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80 이상의 내적일치도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94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문제에 따라 다섯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어판 PANSI 척도 문항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PANSI 척도 14문항에 대해 집중경향치(평균, 표준편차)와 산포도(왜도, 첨도)를 검토하여 각 문항이 척도문항으로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왜도와 첨도를 확인함으로써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PANSI 척도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이 같은 차원에 속한 문항들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다른 차원의 문항들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검토하였다. 셋째, PANSI 척도 전체와 그 하위요인별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준거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ANSI 척도와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관련 척도(CES-D 20, BDI, RES, SWLS)와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척도 개발자가 제시하고 있는 PANSI 척도의 요인구조를 바탕으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 표준화된 요인적재치와 오차항을 확인하여 평균분산을 추출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결측자료(Missing Date)와 비정규성(Non-Normality)은 모수 추정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모두 제외한 후 자료의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을 때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모수를 추정하였

다(송태민·김계수, 2012). 결측치 처리는 연구자가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다중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 한 후 빈도분석으로 결측치를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제외된 사례는 전체의 7.1% 정도였다. 분석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X^2$  검정과 함께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Browne and Cudeck, 1992; Hu and Bentler, 1998; Barrett, 2007; Kline, 2011). 모형적합도의 기준은 CFI, NFI 및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고, .95 이상이면 매우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적절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자료의 분석은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SPSS 18.0 버전을 사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18.0 버전을 사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총 552명의 연구대상자 중 1학년은 174명으로 31.5%, 2학년은 185명으로 33.5%, 3학년은 196명으로 35.0%였는데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67명(48.4%)이고 여학생이 285명(51.6%)으로 성별의 비율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종교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25명(5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가 91명(16.5%), 기독교가 96명(17.4%), 천주교가 35명(6.3%)이었고, 기타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5명(0.9%)이었다. 가정의 화목 수준에 대한 문항에서 화목하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316명(5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주 화목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02명(36.6%)으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화목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2명(5.8%)이었으며 아주 화목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2명(0.4%)이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62명(6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주 만족한다는 응답이 161명(29.2%),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4명(4.3%)이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명(0.9%) 순으로 나타났다. 학급 성적에 대한 문항에서는 상위 30~하위 30% 사이라고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270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상위 30%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82명(33.0%)이었으며 하위 30%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00명(18.1%)으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 대한 문항에서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많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352명(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주 많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는 132명(23.9%), 적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0명(10.9%)이었고 거의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8명(1.4%)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전체 대상자 552명 중 518명(93.8%)이 가정이 화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34명(6.2%)은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생활 만족도도 만족한다 이상의 응답을 한 대상자가 523명(94.8%)이었으며 29명(5.2%)은 학교생활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2〉 일반적 특성(N=552)

영역	구분	빈도(명)	비율(%)
학년	1학년	174	31.5
	2학년	185	33.5
	3학년	196	35.0
성별	남학생	267	48.4
	여학생	285	51.6
종교	불교	91	16.5
	기독교	96	17.4
	천주교	35	6.3
	기타	5	0.9
	무교	325	58.9
가정의 화목	아주 화목	202	36.6
	화목	316	57.2
	화목하지 않음	32	5.8
	아주 화목하지 않음	2	0.4
학교생활 만족도	아주 만족	161	29.2
	만족	362	65.6
	만족하지 않음	24	4.3
	전혀 만족하지 않음	5	0.9
학급 성적	상위 30%이상	182	33.0
	상위 30~하위 30% 사이	270	48.9
	하위 30% 이하	100	18.1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아주 많음	132	23.9
	많음	352	63.8
	적음	60	10.9
	거의 없음	8	1.4

## 2) PANSI 척도 문항들의 기술분석

PANSI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분포의 집중경향성과 산포도를 나타내는 중요 통계치의 하나이며 척도 문항에서는 평균에 극단 값이 없는지, 척도의 중간값과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PANSI 척도의

하위 요인 중 먼저 PANSI-PI(PANSI-Positive Ideation) 요인의 평균은 21.11(SD=5.46)이었다. PANSI-PI 요인의 하위 문항을 살펴보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이 3.74(SD=1.17)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니까?” 문항의 평균이 3.29(SD=1.14)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PANSI-NSI(PANSI-Negative Suicide Ideation) 요인의 평균은 10.14(SD=4.73)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PANSI-NSI 요인의 하위 문항에서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서 자살을 할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문항의 평균이 1.29(SD=0.72)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PANSI-NSI 요인 중 평균이 1.24(SD=0.9)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라는 문항이었다. PANSI 척도의 문항들은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각 하위 요인 내에 포함되는 문항들은 모두 비슷한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PANSI-PI 요인(M=3.52, SD=0.91)과 PANSI-NSI 요인(M=1.27, SD=0.59)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요인별 문항 수로 나누기하여 척도 개발자가 두 편의 논문에서 제시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비교하였다. 그 이유는 외국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원척도와 번안한 척도의 문항별 기술 분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그러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Osman 등의 연구에서는 치료집단의 기술 분석 결과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청소년에 해당되는 기술 분석 결과만 분리하여 비교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sman 등이 2002년과 2003년에 진행한 연구의 하위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PANSI-PI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002년 연구(N=91)에서는 M=3.79, SD=0.88, 2003년 연구(N=188)에서는 M=3.93, SD=0.73으로 나타났다. PANSI-NSI 요인을 살펴보면 Osman 등의 2002년 연구에서는 M=1.23, SD=0.38, 2003년 연구에서는 M=1.16, SD=0.39로 보고되었다. PANSI 척도의 하위 요인을 비교해 본 결과 본 연구와 Osman 등이 진행한 2002년, 2003년 연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NSI 척도가 국내에서 번안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NSI 척도는 대부분의 문항이 왜도와 첨도에서 그 정규성을 따르고 있었으나 PANSI 척도의 부정적 위험 문항에서 1번과 10번의 첨도가 각각 10.585와 9.306으로 10이상이거나 1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번과 10번 문항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심각하다는 단어의 개념이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 간에 문항에 대한 이해가 달라 나타나는 오류로 보인다.

PANSI 척도 문항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이 척도는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위험에 대한 질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정(+)적 혹은 부(-)적으로 관련된 문항들이 골고루 나타났다. 이 척도 문항들의 상관관계는 대부분이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몇몇 문항에서는 .05 수준에서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문항들 중에서 4번과 11번 문항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809(p<.01)로 가장 높았으며, 10번과 12번 문항 간의 상과관계 계수가 -.093(p<.0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척도는 문항 1번과 문항 2번, 문항 1번과 문항 12번, 문항 2번과 문항 10번, 문항 6번과 문항 7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PANSI 척도의 요인과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N=552)

요인	문항	요인과 문항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첨도
요인 1. PANSI_PI			21.11	5.46	-.571	.342
긍정적 요인	P2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이 경험한 생활의 대부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3.45	1.18	-.509	-.441
	P6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의 당신 주위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낀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3.38	1.16	-.495	-.390
	P8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학교나 생활에서 매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3.73	1.12	-.772	.037
	P12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3.29	1.14	-.317	-.369
	P13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3.74	1.17	-.806	-.034
	P14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당신의 미래 계획에 대한 자신감을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3.52	1.16	-.495	-.391
요인 2. PANSI_NSI			10.14	4.73	2.752	7.747
부정적 위험	P1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26	0.69	3.150	10.585
	P3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서 자살을 할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29	0.72	2.807	7.938
	P4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지 않아서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29	0.68	2.491	5.844
	P5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25	0.66	2.863	8.282
	P7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여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27	0.68	2.755	7.531
	P9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당신이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26	0.67	2.742	7.330
	P10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당신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24	0.69	3.071	9.306
	P11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당신이 너무나 외롭거나 슬퍼서 자살하여 그 고통을 끝내고 싶다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1.27	0.69	2.740	7.254

주. PANSI-PI=PANSI-Positive Ideation; PANSI-NSI=PANSI-Negative Suicide Ideation



개별문항들은 다른 하위요인의 문항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낮은 수준의 상관성을 보인 반면 같은 하위요인의 문항들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높은 수준의 상관성을 보였다. 같은 하위 척도의 문항들은 해당 개념의 동일 측면을 측정하므로 높은 상관성을 보인 반면, 다른 하위 차원의 문항들과는 다른 차원을 측정하므로 상관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PANSI 척도의 문항들이 척도로서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 사고를 측정하기에 바람직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 PANSI 척도 문항들에 대한 상관관계(N=552)

문항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P11	P12	P13	P14
P1	1													
P2	-.047	1												
P3	.584**	-.099*	1											
P4	.625**	-.094*	.763**	1										
P5	.576**	-.115**	.729**	.676**	1									
P6	-.143**	.424**	-.175**	-.141**	-.127**	1								
P7	.641**	-.097*	.701**	.713**	.705**	-.074	1							
P8	-.117**	.395**	-.185**	-.200**	-.108*	.559**	-.155**	1						
P9	.576**	-.112**	.766**	.757**	.725**	-.135**	.790**	-.175**	1					
P10	.628**	-.069	.715**	.736**	.651**	-.101*	.755**	-.167**	.740**	1				
P11	.661**	-.096*	.795**	.809**	.714**	-.157**	.718**	-.193**	.765**	.796**	1			
P12	-.063	.483**	-.135**	-.140**	-.106*	.519**	-.109*	.525**	-.166**	-.093*	-.119**	1		
P13	-.197**	.404**	-.275**	-.307**	-.232**	.581**	-.216**	.596**	-.296**	-.238**	-.294**	.659**	1	
P14	-.129**	.438**	-.247**	-.222**	-.197**	.620**	-.154**	.573**	-.235**	-.159**	-.204**	.639**	.755**	1

주1. \*p<.05, \*\*p<.01

주2. P1=다른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P2=경험한 생활의 대부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니까?: P3=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서 자살을 할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P4=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지 않아서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P5=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P6=당신 주위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낀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P7=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여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P8=학교나 생활에서 매우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P9=당신이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P10=당신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P11=당신이 너무나 외롭거나 슬퍼서 자살하여 그 고통을 끝내고 싶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니까?: P12=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니까?: P13=당신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얼마 자주 느끼니까?: P14=당신의 미래 계획에 대한 자신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니까?

### 3) PANSI 척도의 전체 및 하위 요인별 내적일치도

PANSI 척도의 총합점수(GSI)와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를 〈표 5〉제시하였다. 본 척도의 개발자는 신뢰타당도 연구에서 총합점수(GSI)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Osman et al., 2002; Osman et al.,

2003), 국외의 일부 연구들에서 총합점수를 제시하고 있다(Xuezhhi et al., 2011; Yoder et al., 2008)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PANSI 척도의 총합점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PANSI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GSI 및 2개의 하위요인에서 Cronbach's  $\alpha$ 가 .80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내적 신뢰도가 나타났다. 특히 PANSI-NSI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가 .951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척도 개발 당시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Osman et al., 1998).

〈표 5〉 PANSI 척도 내적 일치도 분석결과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PANSI GSI	.880
PANSI-PI	.877
PANSI-NSI	.951

주. PANSI-GSI=PANSI-Global Severity Index, PANSI-PI=PANSI-Positive Ideation;  
PANSI-NSI=PANSI-Negative Suicide Ideation

#### 4) PANSI 척도와 관련 척도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준거타당도 분석

PANSI 척도 전체와 하위요인을 다른 관련 척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PANSI 척도 전체와 2개의 하위요인은 다른 척도와의 상관관계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ANSI 전체와 PANSI-PI 척도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819(p<.01)$ 로 높게 나타났으며 PANSI 전체와 PANSI-NSI 척도 간의 상관관계 계수도  $.749(p<.01)$ 로 높게 보고되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상관관계 계수는  $-.234(p<.01)$ 로 PANSI-PI 척도와 PANSI-NSI 척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났다.

〈표 6〉 척도들에 대한 상관관계(N=552)

문항	RSE	BDI	행복	CES_D	PANSI	PANSI_PI	PANSI_NSI
RSE	1						
BDI	-.564**	1					
SWLS	.651**	-.562**	1				
CES_D 20	-.650**	.620**	-.583**	1			
PANSI	-.585**	.598**	-.555**	.676**	1		
PANSI_PI	.525**	-.377**	.552**	-.556**	-.819**	1	
PANSI_NSI	-.386**	.578**	-.304**	.504**	.749**	-.234**	1
M	27.98	5.07	25.07	14.14	25.03	21.11	10.14
SD	4.49	6.67	6.20	10.96	8.01	5.46	4.73

주1 \*\*p&lt;.01

주2. RSE=Rosenberg Self-Esteem;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 CES-D 20=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20; PANSI=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PANSI-PI=PANSI-Positive Ideation; PANSI-NSI=PANSI-Negative Suicide Ideation

PANSI 척도 전체와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청소년 연구와 실천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른 측정도구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준거타당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준거 타당도는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 자살생각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관련 있다고 밝혀진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본 척도가 기존의 척도들이 측정하는 심리측정 속성을 얼마나 잘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ES\_D, BDI, RSE 및 SWLS 척도를 사용하였다.

PANSI 전체는 CES\_D( $r=.676, p<.01$ ), BDI( $r=.598, p<.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RES( $r=-.585, p<.01$ ), SWLS( $r=-.555, p<.01$ )와는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ANSI-PI 척도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CES\_D( $r=-.556, p<.01$ ), BDI( $r=-.377, p<.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RES( $r=.525, p<.01$ ), SWLS( $r=.552, p<.01$ )과는 정적상관관계로 확인되었다. PANSI-NSI 척도는 CES\_D( $r=.504, p<.01$ ), BDI( $r=.578, p<.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RES( $r=-.386, p<.01$ ), SWLS( $r=-.304, p<.01$ )와는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상관계수는 .00 - .20은 타당도가 거의 없고, .20 - .40은 타당도가 낮은 편이며, .40 - .60은 보통의 타당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60 - .80은 타당도가 높으며 .80 이상이면 타당도가 매우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상관계수의 타당도 지수를 바탕으로 PANSI 척도를 살펴보면 PANSI-PI와 BDI, PANSI-NSI와 RES 및 SWLS 척도가 .30 - .40으로 타당도가 낮은 편이며 그 외의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는 대부분 .60에 근접하여 타당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성태제, 2002).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PANSI 척도 및 그 하위 척도들이 준거타당도가 확보되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척도 개발자의 타당도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PANSI 척도의 보호 요인과 SWLS은 .24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는 정적상관관계(standardized  $\beta=.24$ ,  $p<.001$ )를 가지고, PANSI 척도 중 부정적 요인과 BDI-II 척도가 .49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며 정적상관관계(standardized  $\beta=.49$ ,  $p<.001$ )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Osman et al., 2003).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PANSI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척도들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Osman 등의 척도 개발자가 실시한 타당도 검정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가지고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이는 본 척도 개발자의 의도대로 국내 청소년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표 7> PANSI 척도 전체와 하위요인별 준거 타당도 분석 결과 (N=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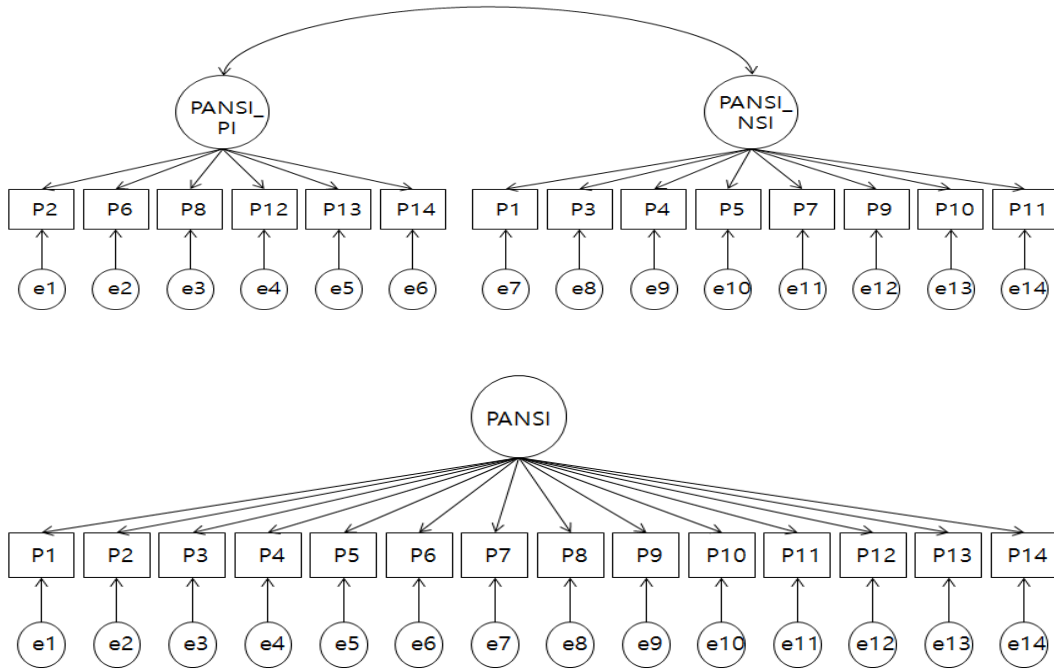
	PANSI	PANSI-PI	PANSI-NSI
CES-D 20	.676**	-.556**	.504**
BDI	.598**	-.377**	.578**
RES	-.585**	.525**	-.386**
SWLS	-.555**	.552**	-.304**

주1. \*\* $p<.01$

주2. CES-D 20=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20;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RSE=Rosenberg Self-Esteem;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ANSI=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PANSI-PI=PANSI-Positive Ideation; PANSI-NSI=PANSI-Negative Suicide Ideation

## 5) PANSI의 요인구조 분석 결과

PANSI 척도는 그 개발자에 의해 2가지 하위 차원, 즉 2요인 구조를 갖도록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PANSI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척도 개발자가 제안하고 있는 PANSI 척도의 2요인 14문항에 대한 모형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X^2(76)=269.56$ ,  $CFI=.966$ ,  $NFI=.954$ ,  $TLI=.960$ ,  $RMSEA=.068$ 의 적합도로 나타나 요인구조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는 달리 PANSI 척도를 1요인 14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들이  $X^2(77)=1753.07$ ,  $CFI=.708$ ,  $NFI=.699$ ,  $TLI=.655$ ,  $RMSEA=.199$ 로 나타나 자료와 모형이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ANSI 척도의 요인 모형은 본 연구의 표집에 대해서도 개발자가 제안하고 있는 2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구성타당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1〉 PANSI의 2요인 모형과 1요인 모형

〈표 8〉 PANSI 척도의 모형별 요인구조 분석 결과

모형	$\chi^2(p)$	df	CFI	NFI	TLI	RMSEA
2요인모형	269.56(.000)	76	.966	.954	.960	.068
1요인모형	1753.07(.000)	77	.708	.699	.655	.199

〈표 9〉에 2요인 모형에 의해 추정된 요인 부하치를 제시하였다. 최대우도추정법으로 추정된 요인부하치의 유의성 검정결과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적은 표준화된 요인부하치는 PANSI 척도 하위요인 중 긍정적 요인과 2번 문항의 관계인데 이는 .531로 나타났으며 반면 PANSI 척도 하위요인 중 부정적 요인과 11번 문항의 관계가 .902로 가장 높은 표준화된 요인부하치로 확인되었다.

〈표 9〉 PANSI 척도의 2요인 구조 모형의 요인부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표준오차	C.R.
P14	← PANSI_PI	1.000	0.858	0.353	-
P13	← PANSI_PI	1.013	0.860	0.357	24.780***
P12	← PANSI_PI	0.864	0.757	0.549	20.556***
P8	← PANSI_PI	0.786	0.699	0.639	18.368***
P6	← PANSI_PI	0.830	0.711	0.664	18.826***
P2	← PANSI_PI	0.633	0.531	1.004	12.958***
P11	← PANSI_NSI	1.000	0.902	0.090	-
P10	← PANSI_NSI	0.942	0.855	0.127	29.413***
P9	← PANSI_NSI	0.939	0.876	0.105	31.048***
P7	← PANSI_NSI	0.918	0.845	0.132	28.626***
P5	← PANSI_NSI	0.846	0.805	0.152	25.914***
P4	← PANSI_NSI	0.947	0.870	0.113	30.596***
P3	← PANSI_NSI	0.994	0.866	0.129	30.236***
P1	← PANSI_NSI	0.780	0.712	0.231	20.833***

주1. \*\*\*p<.001

주2. 〈표 4〉 주석 참고

본 연구에서는 요인과 문항들의 관계에서 긍정적 요인과 2번 문항의 관계가 .531로 다른 요인과 문항들의 관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척도 개발자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요인과 2번 문항의 관계가 .679로 다른 요인과 문항들 간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Osman et al., 2002). 다른 한편 구성타당성과 관련 있는 집중타당성을 살펴본 결과, 2요인 모형의 평균분산은 .660으로 나타났다. 1요인 모형의 평균분산을 표준화계수와 오차항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409의 평균분산이 추출되었다. 집중타당성의 경우 평균분산추출이 .5 이상이면 해당 척도의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PANSI 척도가 2요인 모형일 때 하위요인이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해 66.0%의 설명력을 갖는데 반해 1요인 모형은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해 40.9% 밖에 설명하지 못하므로 2요인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논의

본 연구는 PANSI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여 한국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하는 척도로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ANSI 척도의 기술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문항들의 분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척

도는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각 하위 요인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PANSI 척도 개발자가 두 편의 논문에서 제시한 평균과 표준편차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둘째, PANSI 척도 문항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대부분이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개별문항들은 다른 하위요인의 문항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낮은 수준의 상관성을 보인 반면 같은 하위요인의 문항들과는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높은 수준의 상관성을 보였다. 셋째, PANSI 척도의 전체 점수와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을 고려한 경우에는 Cronbach's  $\alpha$  값은 .880이었으며 PANSI-PI는 .877, PANSI-NSI는 .951로 나타나 이 척도가 좋은 내적 일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PANSI 척도와 다른 측정도구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준거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PANSI 척도 전체와는 CES\_D, BDI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RES, SWLS와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ANSI-PI는 CES\_D, BDI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RES, SWLS과는 정적상관관계로 확인되었다. PANSI-NSI 척도는 CES\_D, BDI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RES, SWLS와는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NSI 척도 전체와 그 하위요인들이 준거타당도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PANSI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척도 개발자가 제안하고 있는 2요인 14문항에 대한 모형적합도가 본 연구의 자료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PANSI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특히 모형의 표준화계수와 오차항을 이용하여 평균분산을 추출한 결과 2요인 모형이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해 66.0%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및 실천 현장에서 PANSI 척도가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ANSI 척도는 청소년들의 자살사고에 대한 긍정적인 보호 요인과 부정적인 위험 요소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리닝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PANSI 척도는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인 학생의 자살 사고를 선별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된 척도이며 문항이 14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청소년 자살사고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PANSI 척도는 표집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하는 스크리닝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사회복지 현장에서 청소년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PANSI 척도가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자살은 예방적 관점이 매우 중요하며 자살생각이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가가 청소년 자살사고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높은 수준의 자살사고를 가진 청소년을 조기에 선별하여 개입을 시도하는데 PANSI 척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 하거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PANSI 척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척도는 개발자에 의해 반복측정신뢰성이 확보된 척도인데 이 말은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개입 프로그램의 성과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PANSI 척도는 청소년 자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활용하는데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에서 PANSI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한 최초의 연구이며 개발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분석 결과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국내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오류를 최대한 배제하고자 한 노력이며 원칙도 개발자의 개발 목적에 맞추어 한국 청소년에게 적용함으로써 척도의 목적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청소년 자살사망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살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수로 알려져 있는 자살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사고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한 한국판 PANSI 척도가 활용된다면 청소년 자살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자살예방 사업에 활용한다면 청소년 자살사망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PANSI 척도의 신뢰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판 PANSI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일반인군과 자살위험군을 구분하여 연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원칙도 개발자의 연구에서는 임상적인 진단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집단 특성에 따른 PANSI 척도의 타당도를 검정하고 검사-재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반복측정신뢰도를 확인하였다 (Osman et al., 2002; Osman et al.,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 임상적인 진단을 받은 청소년을 별도로 구분하여 집단 특성에 따른 타당도를 검정하지 못하였으며 반복측정신뢰도도 검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PANSI 척도의 집단 특성에 따른 타당도와 반복측정신뢰도 검정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사고가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측정불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PANSI 척도의 개발자는 청소년 자살 사고에 있어서 남녀 성별 차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Osman et al., 2002; Osman et al., 2003), 국내외 연구들에서 자살사고는 남녀 청소년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르다는 연구들도 많다 (김지수, 2012, 노혜련 외, 2012, 김갑숙·박치홍, 2015). 따라서 남녀성별 차이가 국내에서는 어떠한지 PANSI 척도의 측정불변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PANSI 척도와 기존의 자살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PANSI 척도의 개발자는 SBQ-R (Suicidal Behaviors Questionnaire-Revised) 척도와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PANSI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제시하고 있다 (Osman et al., 2002). 이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관련 척도들과 PANSI 척도의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PANSI 척도 사용에 대한 더욱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주현·신태수, 2015,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5): 57-51.
- 강희양·양경화,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우울과 자기개념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1): 539-554.
- 고재홍·윤경란,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8(1): 185-212.
- 고효진·김대진·이홍표, 2000,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척도의 타당화 연구(1)”, 『신경정신의학』, 39(4): 680-690.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구경미·정현희,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동적 사고,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경로 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13(3): 1295-1314.
- 구차순·김동환, 2013,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225-255.
- 권세원·이동은·장은혜·한기주, 2013, “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중학생 시기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중단적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1): 203-229.
- 김가영·박경,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시간조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1): 1-15.
- 김갑숙·박지홍, 2015,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성차를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22(1): 115-130.
- 김경아·육성필, 2014, “청소년의 따돌림 종류에 따른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과 문제해결 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2): 695-712.
- 김미경·이은희, 2011, “청소년의 피학대 경험, 자살노출 및 자살보도 노출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목표불안정성의 매개역할”, 『청소년학연구』, 18(12): 403-429.
- 김미예·김정미, 2013,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요인”, 『청소년학연구』, 20(12): 267-293.
- 김소영·홍세희, 2012, “초기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유형분류와 예측”, 『한국청소년연구』, 23(1): 251-275.
-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66-93.
- 김윤정·이창식, 2014,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2(6): 539-547.
- 김은경·이정숙, 2008,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 수치심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구가정관리학회지』, 26(6): 123-134.
- 김인규·조남정, 2006,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7(4): 1189-1202.
- 김재엽·장용언·이승준, 2013, “부모로부터의 방임·정서학대 및 신체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5: 157-183.
- 김정남, 남영옥, 2013,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초기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의 조절효

- 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4): 83-104.
- 김정란·김혜신, 2014,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2): 310-333.
- 김정진·윤명숙, 2008, “농촌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24(4): 77-102.
- 김지수, 201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261-268.
- 김진주·조규관, 2011,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301-214.
- 김채봉·정태영·황성완·김재행, 2013, “남녀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 생각과의 관련 요인”, 『보건의료 산업학회지』, 7(2): 161-177.
- 김태희, 2012, “청소년용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 타당화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순,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1): 203-225.
- 김현순·김병석, 2008,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0(2): 201-219.
- 김현식, 2015, “청소년 성관계 경험이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45(2): 183-191.
- 김현주, 2008, “청소년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27: 69-93.
- 김현주·노자은, 2011,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 지지와 청소년의 자살충동간 인과관계 분석: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2): 135-162.
- 김형태·윤미은·천성수, 2014, “청소년의 스트레스인자가 자살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체활동, 문제음주, 우울인지를 매개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3): 73-81.
- 김혜성, 2009,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5(1): 191-217.
- 남석인·남보영·장은혜,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57-80.
- 남영옥,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20(11): 283-304.
- 노혜련·이종익·전구훈, 2012, “초·중학생의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2): 335-363.
- 노혜련·최경일, 2009, “청소년의 신체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3): 141-165.
- 민병근·이길홍·이재광·김현수·박두병·나 철·박광식, 1986,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살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과학』, 18(1): 20-29.
- 박미정·김희순·박소미·최지혜, 2011,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7(4): 264-271.
- 박병금, 2007, “청소년의 가족환경요인과 자살생각: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총』, 11(1): 1-17.
- 박상용·김세형·김기범, 2011, “Rasch 모형을 적용한 방과후 신체활동참여 청소년용 자살위험측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체육과학회지』, 20(6): 1343-1354.

- 박순희·양정남·최은정, 2015,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생각 간의 관계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5): 301-323.
- 박영숙·권윤희, 2013, “청소년 자살생각 경로모형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3): 255-263.
- 박은옥, 2008,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8(3): 465-473.
- 박재연, 2010,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41(1): 345-375.
- 박재우·황병덕, 2014, “청소년들의 자살차원에 미치는 영향요인”, 『보건의료산업학회지』, 8(3): 193-205.
- 박준하, 2012, “한국형 자살하지 않는 이유 대학생용 척도개발 및 타당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 2007, “청소년의 자살사고, 폭력행동 경로모형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7(6): 835-843.
- 박형수·유진호·박부연, 2013, “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한국전자통신학회』, 8(5): 771-777.
- 배성우·신원식, 2005, “CES-D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요인구조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의 적용”, 『보건과 사회과학』, 18: 165-190.
- 서신자·정민숙, 2013,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262-274.
- 성태제, 2012,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학지사.
- 송인한·권세원·박단비, 2012, “친구의 자살시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352-376.
- 송태민·김계수, 2012, 『보건복지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서울:한나레이카데미.
- 심미영·김교현, 2005, “한국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과 발달시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13-325.
- 여지영·박태영,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8): 121-145.
- 오승환·이창환, 2010, “청소년의 자살충동 결정요인 분석 : 개인, 가족, 학교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6(2): 147-170.
- 오지희·김민정, 2014,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산업학회논문지』, 8(4): 167-178.
- 오현아·박영례·최미혜,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4(1): 35-43.
- 우채영·김판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청소년학연구』, 18(4): 219-240.
- 유용식, 2014, “우울 및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189-197.
- 윤명숙·조혜정, 2011, “청소년음주행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3): 43-66.
- 이기원·현명호·이수진, 2010,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227-242.
- 이선희·전종설, 2012, “남·녀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 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28: 173-202.
- 이영호·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지:임상』, 15(1): 93-113.
- 이은숙, 2007, “남·여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모형”, 『대한간호학회지』, 37(4): 576-585.
- 이준은·최동원·임정혜, 2013, “중학생의 분노,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모형”,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6(2): 72-80.
- 이종익·오승근, 2007, “청소년 대상 학급단위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자살위험성과 자살태도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문화포럼』, 37: 82-101.
- 이지숙, 2013,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유형별 대처방법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3): 321-344.
- 이지현·이정윤, 2009,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와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1113-1126.
- 이학식·임지훈, 2013,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20.0』, 서울: 집현재.
- 이혜선·권정혜, 2009, “한국판 자살생각척도(K-BSI)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155-1172.
- 임남연, 2008, “자기조망시점의 차이가 자기정당화동기와 일상적 합리주의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남연·이화령·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21-47.
- 전경숙·박소연·조선희, 2012, “한국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남녀차이”,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4): 295-308.
- 전병재, 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4.
- 정묘순·서수균, 2014, “청소년 자살시도 예측변인: 자살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145-171.
- 정성미·이지연, 2014,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1): 5-17.
- 정의석·임성택,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완벽성향의 통제 및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8(3): 27-44.
- 정익중·박재연·김은영, 2010, “학교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222-251.
- 조맹제·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조옥선·백진아,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집단따돌림 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8(2): 233-244.
- 진재현·고혜연, 2013,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195: 141-154.
- 최소정·배대석·장문선, 2010, “자살생각과 관련된 부모와의 애착, 역기능적 신념 및 우울간의 관계분석”, 『상담학연구』, 11(2): 571-582.
- 최인재,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

- 석”, 『청소년학연구』, 21(10): 219-243.
- 최혜인·전덕인·정명훈·홍나래·김재진·송정은·육기환·홍현주, 2012, “청소년 우울증에서 자살 행동과 인터넷 사용”,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3: 65-73.
- 하진의,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3): 55-75.
- 허만세·이순희, 2014, “정신장애인에 대한 Brief Symptom Inventory-18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3): 253-276.
- 홍나미, 2012,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의 영향에서 대인관계 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4(1): 151-175.
- 홍민순·정혜선, 2014, “청소년의 흡연과 자살생각관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7(1): 50-57.
- 홍영수, 2009,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 『임상사회사업연구』, 6(1): 159-181.
- 홍영수·전선영,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19: 125-149.
- Aaron T. Beck, 1967, DEPRESS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Augustine Osman, Peter M. Gutierrez, Jennifer J., Beverly A. Kopper, Francisco X. Barrios and Christine E. Chiros, 1998, “The 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73(3): 512-530.
- Augustine Osman, Francisco X. Barrios, Peter M. Gutierrez, Jennifer J. Wrangham, Beverly A. Kopper, Ronald S. Truelove, and Sena C. Linden, 2002, “The 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PANSI) Inventory: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 Ss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3(3): 512-530.
- Augustine Osman, Peter M. Gutierrez, Jason Jiandani, Beverly A. Kopper, Francisco X. Barrios and Sena C. Linden, 2003, “A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PANSI) Inventory with normal adolescent samp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4): 493-512.
- Beck, A. T., Kovacs, M. and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 Psychology*, 47(2): 343-352.
- Beck, A. T., R. A. Steer and W. F. Ranieri, 1988, “Scale for Suicide Ide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Self-Report Ver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4): 499-505.
- Chang, H. J., Lin C. C., Chou, K. R., Ma, W. F. and Yang C. Y., 2009. “Chinese version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Instrumnet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7): 1485-1496.
- Chioqueta, A. P. and Stiles, T. C., 2007, “Dimensions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DAS-A) and the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ATQ-30) as cognitive vulnerability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suicide ideation”,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5(5): 579-589.
- Cull, J. G. and Gill, W. S., 1988, “Suicide Probability Scale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and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omino, G., Moore, D., Westlake, L. and Gibson, L., 1982, "Attitude towards suicide: A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2): 257-262.
- Gispert, M., Davis, M., Marsh, L. and Wheeler, K., 1987, "Predictive factors in repeated suicide attempts by adolescent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38: 90-93.
- Harlow, L., Newcomb, M. and Bentler, P.,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5-21.
- Jenner, J. A. and Niesing, J., 2000, "The construction of the SEDAS: a new suicide attitude questionnaire", *Acta Psychiatrica, Wiley Online Library*.
- Kang, S. J., 2000, "A Study on health risk behaviors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ernberg, O. F., 2004, "The risk of suicide in severe personality disorders: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In O. Kernberg (Ed.), *Aggressivity, narcissism, and self-destructiveness in the psychotherapeutic relationship*(pp. 192-194)", *New Haven & Nondon: Yle University Press*.
- Linehan, M., Goodstein, J., Nielsen, S. and Chils, J., 1983, "Reasons for staying alive when your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20): 276-286.
- Li-tze Hu and Peter M. Bentler,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4): 424-453.
- Michael W. Browne and Robert Cudeck,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Muehlenkamp, J. J., Gutierrez, P. M., Osman, A. and Barrios, F. X., 2005, "Validation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PANSI) inventory in a diverse sample of young adul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4): 431-445.
- Paul Barrett,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djudging model fi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815-824.
- Peter M. Gutierrez, Augustine Osman, Francisco X. Barrios, Beverly A. Kopper, Monty T. Baker and Cherly M. Haraburda, 2002, "Development o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young adu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4): 339-357.
- Peter M. Gutierrez and Augustine Osman, 2008, "Adolescent Suicide-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Pfeffer, C. D., Klerman, G. L., Hurt, S. W., Lesser, M., Peskin, J. R., Pilowsky, D. J., Wu, L. and Anthoy, J. C., 2001, "Panic attacks and suicide attempts in mid-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1545-1549.
- Rex B. Kline,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rd Edition", *The Guilford Press*.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Reynolds, W. M., 1991, "A School-based procedure for the identification of adolescents at risk for suicidal behaviors" *Family Community Health*, 14: 64-75.

- Reynolds, W. M. and Mazza, J., 1994, "Use of the Suicidal Behaviors Interview for screening of School-based adolescents for risk of suicidal behavio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national conference on risk taking behavior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rlington, VA.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Xuezhi, W., Huoliang, G. and Xiaoran, K., 201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hinese revision of 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China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034.
- Yoder, I. A., Whitbeck, L. B. and Hoyt, D. R., 2008, "Dimensionality of thoughts of death and suicide: Evidence from a study of homeless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 83-100.

Abstract

##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PANSI(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Scale

Hoe, Maan Se

(Keimyung University)

Lee, Soon Hee

(Keimyung University)

Kim, Young Sook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PANSI(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K-PANSI) scale which was developed to measure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552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including the K-PANSI. A reliability analysis,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used to test internal consistency(Cronbach alpha), criterion validity (with respect to CES-D, BDI, RES, SWLS), and construct validity. Majo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ronbach's  $\alpha$  of the K-PANSI scale is supported to some degree by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CES-D, BDI, RES, SWLS. Lastly,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PANSI scale showed that a two factor model was appropriate with 66.0 percent of explanatory pow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PANSI scale could be used a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for adolescent' suicide ideation.

Key words: adolescent suicide, suicide ideation, PANSI, reliability and validity

[논문 접수일 : 16. 07. 01, 심사일 : 16. 07. 18, 게재 확정일 : 16. 08. 06]